

교수의 수업 부담 적정화

이 용 남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1. 서 언

오늘날 대학의 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논의들이 있지만,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점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대두된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 대학의 역사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의 기능은 먼저 근대 독일의 대학에서, 교육의 기능은 영국의 대학에서 강조되어 왔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통합시키려는 시도는 프랑스의 대학에서였으며, 사회봉사적 기능은 특히 미국의 대학에서 강조되어 왔다.

이 세 기능들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요즈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대학이 공존하는 세상에서는 우스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대학의 존립 근거를 찾아 보면, 아마 연구의 기능이 교육이나 사회봉사 기능보다 앞섭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연구에 기초하지 않은 교육이나 사회봉사는 대학의 참다운 교육 및 봉사와는 동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학교는 사회라는 거대한 상위체제 속의 하나의 하위체제이면서 동시에 산업체, 군대, 정당들과는 비슷한 처지의 동료체제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목적은 제각기 다르다. 그런데 만일 어떤 하위체제가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체제는 사회로부터

도외시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체제로 대체될 것이다.

학교라 하면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연상하고 교육을 떠올리는데, 학교 중에서도 특히 대학은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교육의 기능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사회가 어떤 다른 하위체제보다도 일차적으로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 우선 새로운 지식을 산출해 달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쳐 교육받은 인력을 배출시키고, 또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적용하여 봉사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만약 그에 부과된 일차적 기능인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존립 근거가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대학들은 이러한 연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연구 관련 자료 및 도서 입수의 어려움, 연구 시설 및 설비의 열악성, 연구비 규모의 영세성, 연구 진용 및 보조인력의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 외에도 교육활동에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육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교수의 적정한 교육활동상의 부담, 그 중에서도 특히 적정한 수업 부담의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교수의 과중한 수업 시간수

교수들의 연구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는 먼저 과중한 수업 부담을 들 수 있다. 우선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나라들의 교수에 비해 우리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수업 시

간과 과목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4년제 대학 교수의 주당 수업 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한 전국 23개 대학의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표 1〉 참조), 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수업을 포함하여, 평균 약 10.2시간 정도이다. 속단하여 이런 정도는 그렇게 많은 시간 부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보다 연구 여건이 훨씬 나은 미국 대학 교수들의 평균 수업 시간수가 학부 한 과목 3시간, 대학원 한 과목 3시간, 합계 약 6시간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10.2시간은 여전히 많은 수업시간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대학 종합평가가 1994년부터 7개교를 필두로 시작되었는 바, 1995년까지 종합평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받은 30개 대학은 전국 160여 대학 중 비교적 역사가 깊고 교수 확보율 등 여건이 좋은 대학들이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대학 교수들의 주당 평균 수업 시간수를 조사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훨씬 더 상향 조정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1994년 전국 11개 대학(서울 6개교, 지방 5개교; 국립 2개교, 사립 9개교) 248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표 2〉 참조), 교수들의 주당 수업 시간수는 학부와 대학원 수업을 합하여 평균 11.71시간으로, 미국 교수들에 비해 대략 2배의 수업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최대 수업 시간수가 무려 26시간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교사들보다 더 과중한 시수라고도 할 수 있다.

〈표 1〉 전임교수 1인당 수업 시간수

시간 수	학 교수	비율
9시간 미만	4	17.4
9~10시간 미만	4	17.4
10~11시간 미만	11	47.8
11~12시간 미만	2	8.7
12시간 이상	2	8.7
합 계	23	100.0

〈표 2〉 교수들의 주당 수업 시간수

구 분	평균	최소치	최대치
학부 및 대학원	11.71	1	26
학 부	9.52	1	23
대 학 원	3.42	0	8

교수의 수업 시간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대학 교수는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 시간이 많을수록 준비와 실제 수업 시간에 보낸 시간, 그리고 과다한 수업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큼 연구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양질의 연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3. 교수의 과다한 담당 과목수

한국 대학 교수들의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이 많은 것 외에 학기당 담당 과목수가 많은 것도 문제다. 앞에서 언급한 박부권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표 3〉 참조), 11개 대학 교수들의 평균 학기당 담당 과목수는

3.76과목이다. 또한 담당 최대 과목수는 6개 과목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 학기당 평균 학부 한 과목, 대학원 한 과목으로 함께 2과목 정도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교수들이 약 2배 가량의 수업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담당 과목수가 많은 것과 수업 시간수가 많아지는 것은 관계가 깊지만, 꼭 그 관계가 일정하지는 않다. 똑같은 과목을 여러 번 가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특정의 교양 과목이나 교직 과목을 여러 반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수업 시간수가 많아도 가르칠 과목수가 적으면 그만큼 수업 준비에 부담이 덜 되지만, 과목수가 많아지면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난다. 따라서 이로 인해 그만큼 연구에 투자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양질의 연구가 양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교수들이 가르칠 과목수가 많은 것은 수업 시간수가 많은 것 이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과목 수가 많으면 수업 준비에 소비할 시간이 과목수에 비례해 훨씬 더 늘어나 그로 인해 연구를 등한 시하기 쉽고, 또 자칫 잘못하면 수업 준비 자체도 부실해져 성과 없는 수업이 되기 쉽다.

그 외에도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 교과 내지 전문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 여러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자신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와는 관계가 없는 과목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의 수업은 가르칠 내용도 자신의 전문 분야만큼 준비가 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수업

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로 인해 자신의 전문 연구 분야의 서적이나 문헌을 탐독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수준이 떨어진 연구를 산출하게 되고 만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가르칠 과목수를 줄여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한국의 교수 중에는 학부 수업의 경우 한 학기 최대 6과목, 대학원 수업은 최대 3과목까지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많은 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목만 개설했지 부실한 수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구비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 비해 연구비, 시설, 인력, 자료 등 여러 가지 물리적 연구 여건도 불리한데 지나친 수업 부담으로 인해 연구에 투자할 충분한 시간까지 확보할 수 없다면, 학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들의 지식의 소비자로 전락하여 지적 종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최소 요건인 수업 시간의 적정화 방안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수의 자기교육 기회 부족

교수들은 양질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자신부터 부단히 자기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표 3> 교수들의 학기당 담당 과목수

구 분	평균	최소치	최대치
학부 및 대학원	3.76	1	6
학 부	2.94	1	6
대학원	1.25	0	3

안 된다. 요즈음 지식은 그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서적과 논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에 접하지 않으면 새로운 연구용 아이디어를 얻거나 가르칠 내용을 최신화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학생들로부터 경원시되기 쉬운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이 점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중한 수업시간과 과다한 교과목으로 인한 수업 준비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자기교육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데다가, 최신 정보를 얻을 정보원인 도서관 자체가 아직은 외국 유수 대학의 도서관에 비해 불비된 상태에 있다. 1994년에 한국고등교육연수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표 4> 참조), 우리 대학들의 장서수가 외국 대학 도서관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상태이다. 장서수도 문제이지만 그 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에도 지장이 많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연구해야 할 교수들이 일차적으로 자기교육을 위해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교수들의 월급 수준으로는 비싼 외국의 원서나 전문 학술지를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교수들의

<표 4> 세계 주요 대학의 장서수

대 학	국가	장서수(권)	학생1인당 도서수(권)
도쿄	일본	6,090,000	296
교토	일본	4,360,000	281
옥스퍼드	영국	8,000,000	593
일리노이	미국	7,190,000	209
미네소타	미국	11,000,000	251
국립(평균)	한국	265,111	25.8
사립(평균)	한국	195,780	28.7

〈표 5〉 전임교수 학위 소지 비율(1995년)

계 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인문계	71.4	27.8	1.3	
사회계	88.3	12.6	0.3	
자연계 이학	93.7	6.9	0.2	
자연계 공학	90.8	11.0	0.5	
자연계 기타	82.7	15.1	1.0	
의약계	73.9	20.9	4.9	0.1
예체계	17.9	79.4	3.9	0.2
사범계 인문	78.2	21.3	1.2	
사범계 자연	88.1	11.6	0.4	
사범계 예체	28.8	66.6	3.9	0.9

자기교육을 위한 이러한 측면의 개선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교수들의 자기교육은 도서관이나 자신 소유의 자료나 도서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공부함으로써 보다 나은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기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1995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3개 대학 종합평가 결과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표 5〉 참조), 우리 대학들의 형편은 교수들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연계열 교수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인문·사회 계열 교수들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예·체능 계열 교수들은 그 전공의 특성상 실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의 박사과정 프로그램들이 아직 불충분하여 박사학위 소지 비율이 자연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에 훨씬 못미친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교수들의 박사학위 소지 비율이 1992년에 약 57.5%에서 1995년에는 약 80%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약 20%의 교수들이 박사학위가 없거나 학위

과정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는 대학 종합평가에 참여한 비교적 여건이 좀 더 나은 대학의 경우이고, 여건이 더 어려운 대학의 경우는 이보다 박사학위 비소지 비율이 더욱 올라가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연구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수들의 자기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하여 교수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수들의 자기교육 기회로서 중요한 것이 안식년제 또는 연구년제라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은 양질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한 학기 내지 1년 정도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자신이 알고 써 먹은 지식은 요즈음과 같이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는 곧 낡은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대학 교수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충전의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외국의 대학에서는 대단히 일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이를 대학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내 대학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주고 있는 기회도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교수들의 양질의 연구를 위해서 그러한 기회의 확대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수의 학생지도 부담

한국 교수들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교육활동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의 하나가 학생지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교수들은 너무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고, 지도의 필요상 상대해야 하기 때

문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 1994년도 교육부 내부자료에 의해 주요 국가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보면(〈표 6〉 참조), 우리나라 교수들의 열악한 환경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보다 형편이 더 좋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비슷하거나 더 못한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교수들이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년도 대학 종합평가를 받은 23개 대학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자료에 의하면(〈표 7〉 참조), 우리의 경우 국립대보다 사립대 교수들의 여건이 더욱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수 한 사람이 상대해야 할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수업 도중에도 심리적 부담이 크고 육체적으로도 훨씬 더 피로하다. 그뿐 아니라 성적 및 과제를 처리, 그리고 학생 면담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연구에 몰두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활동 및 좋은 연구물의 산출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이 이와 같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대학의 교수 확보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1994년도 교육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표 8〉 참조), 전임교수 확보율이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더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수 확보율이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재직 교수들의 교육적 부담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는 양질의 교육과 연구물 산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수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조교와 외래 강사가 있다. 그런데 1995년도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종합평가 결과에 의하면, 23개 평가 참여 대학의 경우, 교수 1인당 유급 조교의 수는 0.31명, 시간 강사의 수는 0.89명으로서 조교는 교수 3 내지 4명당 1명이고, 강사수는 거의 교수수에 맞먹는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급 조교는 단지 교수의 연구나 수업의 보조활동뿐 아니라 학과의 사무 처리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조교에게도 과중한 업무량일 뿐 아니라 교수에 대한 보조활동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표 6〉 주요국의 교수 1인당 학생수

국가	연도	교수 1인당 학생수
한 국	1993	37.8
터어키	1990	21.8
브라질	1990	11.7
말레이시아	1990	10.2
캐나다	1990	22.0
일 본	1990	9.9

〈표 7〉 교수 1인당 학생수

연도	구분	교수 1인당 학생 수
1992	국립	25.9
	사립	34.9
	총계	32.4
1995	국립	26.2
	사립	30.9
	총계	29.3

〈표 8〉 대학의 교수 확보율

구 분	교수수	확보율
국·공립	9,338	83.1
사립	20,671	70.1
총계	30,059	73.9

* 전문대학 교수도 포함된 자료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어야 교수의 교육이나 연구활동이 원활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임교수 수와 거의 비슷한 수의 외래 강사에게 대학생들의 교육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학들의 열악한 여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1995년도 같은 자료에 의하면, 23개 대학이 교양과정 수업의 약 56.9%, 학부 전공 수업의 약 26.2%, 그리고 대학원 수업의 약 9.6%를 외래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너무 높은 강사 의존율이라고 할 수 있다. 외래 강사들은 소속이 다르거나 없으므로 수업 시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전임교수처럼 수업 외의 다른 측면에서 학생 지도를 기대할 수는 없다. 수업 시간 외의 교육활동은 모두 조교와 전임교수의 몫인데, 이는 너무 큰 부담이라 할 수 있다.

6.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수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는 교수의 교육활동상의 애로점을 살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교수들은 수업 부담이 너무 큼을 알게 되었다. 선진국의 두 배나 되는 수업 시간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수업 시간수가 많아 그만큼 상대적으로 연구에 소비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수업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그 일차적인 역할이 연구보다는 차라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시간수도 많거니와 가르칠 과목도

다른 나라의 두 배나 되어, 수업 준비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 더구나 대부분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까지도 가르쳐야 하므로 교육 자체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들은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우리의 대학들은 대학의 원래 기능인 연구보다 교육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은 좋은 연구 결과에 의거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좋은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기교육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학생 교육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교수들이 자기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데다, 계속해서 최근 정보에 접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신 정보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소장 도서수도 부족하거나 전문 학술지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교수들의 자기교육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수들의 박사학위 비소지율이 약 20% 정도에 이르는데, 자기교육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수업 시간 감소 등 대학 당국의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 교수의 수업을 면제해 주고 일정 기간 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안식년제나 연구년제가 아직 대부분의 대학에서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학생 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빼앗겨 연구에 지장을 받는다. 이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다른 나라의 두 배나 되어 부담이 크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수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조하는 조교의 수도 부족하고, 교수 확보율이 부족하여 거의 교수수에 육박하는 외래 강사에 교육의 일부를 맡기고 있

다는 사실에서도 현재 교수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수들에게 좋은 연구를 내도록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교수의 수업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수업 시간수는 현재 12시간 정도에서 선진국 수준인 6시간까지는 당장 어렵더라도 9시간 정도까지는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르치는 과목수도 현재의 4과목 정도에서 선진국의 2과목까지는 당장 어렵더라도 3과목 정도까지라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교수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기교육 기회를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도서수나 전문학술지 확보율을 더 높이고,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교수를 위해서는 수업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수업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년제나 연구년제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의 학생지도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학이 교수 확보율을 더욱 높이고, 교수를 보조할 조교 수도 더욱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기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연구 역량 및 교육이 국가적인 과제라는 인식 아래 정부 당국에서는 대학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재정적 보조를 더 많이 해 주고 그에 따른 행정적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

이용남/전남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미국 미조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문교수, 서울대 교류교수, 전남대 학생생활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탐구』 등이 있고, "Variables related to test anxiety in Korea", "교과 심리학과 사교력 교육의 관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